

2021  
수특

2021 수능특강 문학 1. 개념학습 2강 정석가 작자미상 분석서술형문제

이 콘텐츠는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,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 
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,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■ 지문 분석

㉠ 삭삭기(청각적 심상) 세모레 벼랑에 나난

㉡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(생명이 존재 불가능한 상황 ①) 나난

㉢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

그 밤이 움이 돌아 싹 나거시아

그 밤이 움이 돌아 싹 나거시아

㉣ 유덕(有德)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

(반어: 가정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(㉠→㉡→㉢)이 가능한 상황(㉣)으로 뒀을 때를 설정. ㉠,㉡,㉢,㉣는 전제이고 ㉣는 주지이며 이 관계는 서로 역설적이다. 화자는 이를 통해 입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.)

<제2연>

옥(玉)으로 연꽃을 사교이다

《옥(玉)으로 연꽃을 사교이다

바위 위(생명이 존재 불가능한 상황 ②)에 접주(接柱)하오이다 \*

그 꽃이 삼동(三同)(① 세 묶음, ② 추운 겨울 / 중의적 해석 가능)이 피거시아》(《 : 역설적 표현 ②)

그 꽃이 삼동(三同)이 피거시아

유덕(有德)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

<제3연>

《무쇠로 철릭 \* 을 말아 나난

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

철사(鐵絲)로 주름 박오이다

그 옷이 다 헐어시아》(《 : 역설적 표현 ③)

그 옷이 다 헐어시아

유덕(有德)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

<제4연>

▶ 2~4연 :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입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함

㉠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

구슬이 바위에 지신들

끈잇단 그츠리잇가

㉡ 즈문 해를 외오곰 여신들

즈문 해를 외오곰 여신들

신(信)잇단 그츠리잇가(설의법: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 강조)

(㉠와 ㉡: 비유적 유추 관계.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

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.)

<제6연>

- \* 접주하요이다 : 접붙입니다.
- \* 철릭 :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.

- 작자 미상, 「정석가」

## ▣ 핵심 정리

■ 형식 : 고려 속요. 전 6연 모든 연 6구

■ 성격 : 축도가, 서정적, 민요적

### ■ 특징

- 반복과 과장으로 운율을 형성하며 주제를 부각
- 역설법. 반어법을 사용하여, ▪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설정한 후, 영원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노래
- 한 연에 똑같이 되풀이 되는 2구가 있어 감정을 강조
- 소망형인 어미로 끝내면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느끼게 함

### ■ 주제

- 임애의 영원한 사랑
- 영원한 해로(偕老)를 축원하는 사랑의 맹세
-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

### ■ 의의

-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음.
- 불가능한 사실을 전제로 완곡한 표현법을 살린 작품

### ■ 구 성 : 서사 - 본사 - 결사의 3단 구성

▪ 기(1연) : 태평성대를 갈구함

▪ 서(2연 ~ 5연) :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갈구함

※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

▪ 결(6연) : 임애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

※ 6연은 2-5연과 그 표현 방법과 달리, 전반부는 비유적인 표현, 후반부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임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신의를 나타내고 있다. 이는 고려 속요인 서경별곡의 2연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리게 되었을 때 첨가된 것으로 추측된다.

## ▣ 이해와 감상

이 노래는 기원과 축원을 역설에 담고 있는 특이한 작품이다. 그러면서도 유별나게 논리적이고 지적인 작품이다. 서사에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제 2연에서 5연까지는 소재만 달리 할 뿐,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설정해 놓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. 즉 제 2연에서는 구운 밤, 제 3연에서는 옥련꽃, 제 4연에서는 무쇠옷, 제 5연은 무쇠소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놓고(이 소재들은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불가능의 전제조건이다.) 영원히 임과는 헤어질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다.

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민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, 제 2연에서 제 5연까지는 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'메김소리'로 부를 수 있다고 하겠다. 또, 제 2연에서 제 5연까지 등장

한 소재 가운데 '구은 밤'과 '소'는 농민 생활의 반영이요, '연꽃'은 불교 생활의 반영이며 '털릭'은 이 노래의 지은이가 적어도 '털릭'을 입을 수 있었던 신분임을 알려 준다고 하겠다.

그런데 제 6연에는 이 노래와 관계가 없는 '서경별곡'의 제 2연이 첨가되어 있다. 이것은 아마 당시 이와 같은 구절이 널리 유행되었으리라는 추측을 가져 오고 있다.

그리고 이 노래는 가사 이외에 어떠한 배경적 기록도 문헌에 보이지 않아, 고려 속요로 단정할 증거는 없으나, 형식과 내용과 표현상의 특색에 있어 고려속요와 일치하므로 속요로 보고 있다.

문헌상 기록이 없어 정확한 가의(歌意)를 알 수 없으나, 일반적으로 임에의 구원(久遠)한 연모지정(戀慕之情), 또는 축도지원(祝禱之願)을 노래한 것으로 본다.

#### ■ 고려 속요의 형태적 특성

고려 속요는 3·3·2, 혹은 3·3·3조의 3음보 연장체(聯章體)로 이루어져 있으며, 각 연은 후렴구를 중심으로 전후절(前後節)이 나뉘는, 분절체(分節體) 형식을 취한다. 특히 다양한 후렴구는 민요적 성격을 반영하며,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매끄러운 리듬을 살리고 있다.